

# 한-케냐 인프라협력센터

## 건설 · 인프라 동향 보고 (2월 1~2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 주요 경제 지표

|                  | 해당년/월/주/일 | 전년/월/주/일 | 참고시점       |
|------------------|-----------|----------|------------|
| 환율(1USD)         | 129.1     | 129.5    | 2024.02.1주 |
| 인플레이션(%)         | 3.3       | 3.0      | 2025.2월말   |
| CPI(points)      | 140.68    | 141.66   | 2025.1월말   |
| 정부부채비율(% of GDP) | 70.1      | 66.7     | 2023년말     |

##### ○ 케냐, 2022-2027년 13.4조 KES 징수 계획 반발 예상

- 루토 대통령, 첫 임기(2022년~ 2027년)동안 총 KES 13.4조 징수 계획을 밝힘. 현재는 2028/29 회계연도까지 연간 세수 목표 KES 4조 이상으로 확보를 목표<sup>1)</sup>

- 정부는 2024년 세수를 확보를 위해 2024년 재정법안(Finance Bill)\* 발표했으나 대중의 거센 반발 철회

\* 주요 항목: 1.5% 주택세(Housing Levy) 도입, 석유 부가가치세(VAT) 8%→16% 인상.

- 정부는 회계연도\* 별로 단계별로 세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나 대중의 반발과 국내외 경제 영향의 변수 작용을 고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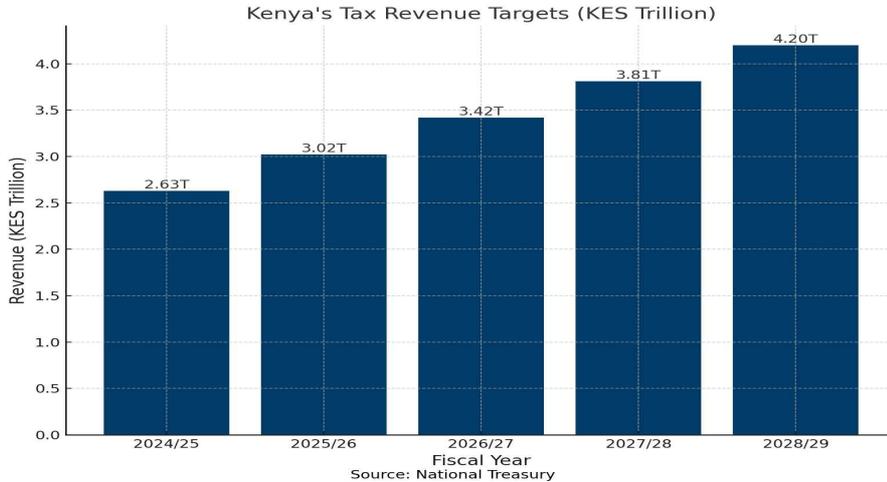
\* 2024/25 회계연도 목표: KES 2.63조

2025/26 회계연도 목표: KES 3.02조

2026/27 회계연도 목표: KES 3.42조

1) <https://nation.africa/kenya/business/president-ruto-targets-sh13-4trn-taxes-in-first-term--4897168#story>

<케냐 세수 목표 2024/25~ 2028/29>



출처: 케냐 재무부

○ 케냐 정부, 2025/26년 국내 차입 목표 32% 확대로 금리 상승 우려

- 케냐 정부는 2025/26 회계연도 국내 차입을 KES 5,458억으로 책정(전년대비 32% 증가) 하며 정부의 부채 증가를 전망
- 2025/26년 공공부채 이자는 KES 1.08조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KES 1조 증가한 수치이며. 차입 증가로 인해 금리 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이에 케냐 중앙은행(CBK)은 2024년 8월부터 12월 사이 기준금리를 13% →11.25%로 인하하며 추가 인하를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 대출 활성화를 유도 계획 중

○ 재무부, 도로·교량 예산 239% 증강, 하지만 목표치엔 여전히 미달

- 재무부는 도로 노후화와 공사 지연에 대해 KES 263.7억 책정(2024.12). 이는 전년도 (KES 77.7억) 대비 239.32% 증액<sup>2)</sup>
- 케냐 정부는 2024/25 회계연도 상반기에 개발 프로젝트에 KES 12 98억을(전년도 대비 84.4% 증가) 배정했으나, 여전히 예산 삭감, 해외 원조 중단, 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재 도로 부문 개발 예산은 연간 목표(KES 662.3억) 대비 20.39% 부족한 상황<sup>3)4)</sup>

2)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triples-funding-for-roads-bridges-after-outcry-4903512> Business Daily Jan 28, 2025

- 현재 예산 증강은 루토 대통령이 이전 정부로부터 인수한 KES 9000억(약 90조 원) 규모의 도로 예산을 절감하려 했던 초기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되며. 루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도로 건설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기반시설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 방향을 변경한 것으로 예상

○ 케냐, 입찰 규모 3년 만에 최저, 재정 압박 속 지출 축소

- 케냐 정부의 2023/24 회계연도에 입찰 규모는 전년대비 KES 74.9억 감소한 KES 2040.5억을 보이며 이는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
- 이번 감소는 재정적 제약과 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해 정부가 지출을 줄인 데 따른 결과로 정부의 주요 재정 지출 중 68.3%가 부채 상환에 배정되면서, 공공사업 및 조달 예산이 축소됨
- 하지만 계약 건수는 증가하며 이는 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소규모·저비용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것이 예상되나 정부 기관들은 미지급 채무 증가로 인해 민간 부문 공급업체와의 거래에 차질과 파트너들의 재정 유동성에도 부담을 야기<sup>5)</sup>

<케냐 정부 입찰 규모 2019/20~ 2023/24>



Source: PPIP

출처: 케냐 PPP청

3)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roads-and-cdf-take-priority-in-development-funding-4899664>  
 4)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kra-misses-revenue-target-by-sh163bn-in-six-months-4895838>  
 5)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companies/ex-public-debt-chief-bounces-back-with-new-ruto-assignment-4898498> Business Daily  
 Mon Jan 20, 2025

## 2 PPP 관련 동향

### ○ 재무부, PPP 펀딩 확보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재무부는 PPP 프로젝트 장기 펀딩 확보와 규제 및 계약 구조 개편을 위해 금융, 투자, 인프라 시장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
- PPP 위원회는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KIA) 활주로 확장과 나이로비-나쿠루-마우 Summit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 계획<sup>6)</sup>
- 또한 국내 연기금(KES 2조 규모)과 생명보험 산업(KES 5000억 규모)을 핵심 자금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국가 부채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방식을 모색 중.
- 그러나 현재 케냐 퇴직연금관리국(RBA) 규정에 따라 연기금의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는 PPP법(2013)에서 승인된 부채 상품의 10%로 제한되어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 케냐, 월드뱅크와 KES 490억 규모 송전 프로젝트 재추진

- 케냐 전력송전공사(KETRACO),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와 PPP로 총 KES 490억 규모로 추진되던 송전선 프로젝트 신규 투자자 유치 모색 중<sup>7)</sup>
- 기존 수주했던 인도계 아다니 그룹(Adani Group)이 2024년 10월 회장 Gautam Adani의 미국 내 뇌물 수수 의혹으로 및 계약과정이 의혹으로 취소
- 해당 프로젝트는 Olkaria - Nairobi 구간 기존 송전망의 과부하로 인한 잦은 정전을 인한 기존 인프라 보수 및 지원 핵심 사업으로 선정

## 3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 KenGen, 5년간 42개 지열정 개발. 200MW 추가 생산 계획 중

- 케냐 전력발전공사(KenGen)는 향후 5년간 Olkaria 지열 발전소에서 42개의 신규 지열정을 개발하며 국가 전력망에 200MW의 지열 발전 용량 확장을 계획<sup>8)</sup>

6)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s-headache-as-ppp-project-funding-slumps-91pc-4884146> Business Daily Jan 10, 2025

7) <https://nation.africa/kenya/business/kenya-taps-world-bank-revive-power-line-after-failed-adani-deal-4907764#story>

8)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kengen-plans-to-drill-42-new-wells-with-an-output-of-200mw-4904922#:~:text=The%2042%20wells%20will%20be,from%20November%2016%20last%20year.> Business Daily Wed Jan 29, 2025

- 프로젝트는 2031년까지 231MW 규모의 화력 발전을 단계적 폐지 예정하며 총비용은 KES 232.9억에 달하며 각 지열정 개발 비용은 약 KES 5.55억으로 추산됨,
  - KenGen은 향후 50년간 케냐 야생동물청(KWS)으로부터 1,580.29 에이커(약 639만㎡) 규모의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2024.11)
  - 현 프로젝트는 케냐의 ‘저비용 전력 개발 계획 2022-2041’ (Least Cost Power Development Plan- LCPDP)의 일환으로,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JICA 등 협력 추진 중
- 케냐, 국제지원 확보로 전력 보급률 80% 목표 설정.
- 케냐 정부, 프랑스개발청(AFD), 유럽투자은행(EIB), 유럽연합(EU)으로부터 USD 1억 7,000만 지원 확보로 농촌 전력망 개선 추진 중<sup>9)</sup>.
  - 케냐의 전력 보급률은 2013년 29%에서 2024년 약 75%까지 증가했으나, 평균 가구는 여전히 장작, 숯 등에 의존하는 걸로 알려짐
  - 지원금의 USD 9,260만은 북동부 14개 카운티의 mini-grid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 개발에 사용되며, 지역 주민들의 전력 보급을 개선함과 기존에 의존하는 장작, 숯 등 공급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전력 저장 시스템 (Battery Energy Stroage System)을 구축하여 잉여 전력을 저장 후 재공급 방안을 도입
  - 케냐 정부는 매년 3,860만 달러를 전력 보급 확대에 지속 투자할 방침이며, 추가로 9,260만 달러를 차기 회계연도(2025/26) 인프라 보수에 투입할 계획을 밝힘

#### 4 정치 동향

- 정부, 42개 국영기업 20개로 통합으로 비용 절감·효율성 강화 기대
  - 케냐 정부는 공공부문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2개 공기업을 20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을 승인<sup>10)</sup>.
  - 루토 대통령은 이번 조정으로 공무원 감축 없이 모든 인원은 공공부문 내에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개혁안은 국영기업

9) <https://serrarigroup.com/kenya-secures-386-million-to-expand-national-electricity-coverage/>

10) <https://www.the-star.co.ke/news/realtime/2025-01-22-no-jobs-will-be-lost-ruto-clarifies-merger-of-state-corporations>

민영화 대상 기관을 제외한 27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무부의 평가를 반영.

- 그러나 중복된 직위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84명의 CEO 및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거취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경영진 간 경쟁과 재배치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며, 향후 인사 조정 과정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예상.

#### 4 대외활동 동향

##### ○ 미국 WHO 탈퇴로 케냐 정부 대체 지원 확보 모색

-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로 인해 케냐는 PEPFAR(미국 대통령 긴급 에이즈 구제 계획)와 글로벌 펀드 등 미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감소로 국민 130만명이 HIV/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 및 치료에 차질 우려<sup>11)</sup> .
- 현재 케냐 정부는 인접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보건 인프라를 개선. 유럽연합(EU), 빌 & 멀린다 게이츠 재단 등 새로운 글로벌 보건 파트너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 및 대책을 추진 중<sup>12)</sup>

11) <https://www.standardmedia.co.ke/health/health-science/article/2001509957/trump-orders-how-americas-exit-from-who-will-affect-kenyas-health-system>

12) <https://nation.africa/kenya/health/kenya-explores-new-health-partnerships-as-us-abandons-who-4899140>

##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 ① Bogoria Silale Geothermal Power Project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Geothermal Development Company (GDC)
- (도 급 사) Hong Kong Offshore Oil Services
- (사 업 비) €8,000만
- (Funding) 독일개발은행 (KfW)
- (사업내용)  
\*파카(Paka), 코로시(Korosi), 실랄리(Silali)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국가 전력망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 장기적으로 최대 3,000MW의 지열 발전 생산 예상<sup>13)</sup>
- (추진현황)
  - 2014: 케냐 지열개발공사(GDC)가 착수하여, 국가 에너지원 다각화 및 확대를 목표로 진행
  - 2016: 시추 작업 시작.<sup>14)</sup>
  - 2019: 첫 번째 지열정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해당 지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지열 자원 확인. 이후 다수의 시추 작업 추가 진행<sup>15)16)</sup>.
  - 2023: 발전소 건설 및 전력망 연결 계획 구체화 진행<sup>17)</sup>
  - 2028: 6월 첫 번째 발전소 가동 예정

○ (주요상황) 프로젝트는 케냐-독일과의 최초의 ‘부채-기후 교환 (debt-for-climate swap)’ \* 협정의 일환으로 추진

\*독일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 6천만을 케냐 정부 부채에서 탕감 예정.

- 이번 협정은 지열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부채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과 연계 방식으로 진행. 이를 통해 케냐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기후 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 전망<sup>18)</sup>

13) <https://www.gdc.co.ke/baringo/>

14) <https://www.thinkgeoenergy.com/rig-up-started-by-gdc-at-baringo-silali-geothermal-project-in-kenya/>

15) <https://www.africa-energy.com/news-centre/article/kenya-first-geothermal-well-complete-baringo-silali>

16) <https://www.thinkgeoenergy.com/baringo-silali-field-is-kenyas-next-big-geothermal-bet/>

17) <https://www.power-technology.com/data-insights/power-plant-profile-baringo-silali-geothermal-plant-kenya/>

18)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kenya-unlocks-sh8bn-relief-in-first-debt-for-climate-swap-4903872>

## ② Illasit-Njukini-Taveta Road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케냐 고속도로청(KeNHA)
- (도 급 사) Synohydro Corporation Ltd
- (사 업 비) KES 7.9 억
- (편 당) 케냐정부
- (사업내용)
  - \*일라잇-뉴키니-타베타(Illasit-Njukini-Taveta) 도로(66.5km)를 기존 자갈길에서 아스팔트 포장 도로 전환 프로젝트<sup>19)</sup>
- (추진현황)
  - 2019: 사회관리계획(ESMP) 발표<sup>20)</sup>
  - 2024: 착공 계획 발표<sup>21)</sup>
  - 2024: 대통령실 행정 책임자 Dr. Katoo Ole Metito는 아스팔트 포장 작업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공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sup>22)</sup>
  - 2024: 프로젝트 경제적 타당성과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정부는 계약을 철회<sup>23)</sup>

- (주요상황) 케냐 고속도로청 (KeNHA)의 Eng. Kungu Ndungu 청장은 lasit-Njukini-Taveta 구간 도로 부지를 중국계 국영 건설사 Sinohydro Corporation Ltd에 공식 인계
  - 당초 PPP 계약이 해지되며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는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공사를 지속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프로젝트 진행 방식과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추가 발표 예상<sup>24)</sup>

##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해당사항 없음

19) <https://www.miga.org/sites/default/files/2020-08/Illasit-Njukini-Taveta%20Updated%20ESMP%20%282%29.pdf> pg 9

20) <https://www.miga.org/sites/default/files/2020-08/Illasit-Njukini-Taveta%20Updated%20ESMP%20%282%29.pdf>

21) <https://www.transport.go.ke/index.php/taita-taveta-leaders-meeting-cabinet-secretary>

22) <https://www.kajiado.co.ke/katoo-says-construction-of-illasit-taveta-road-to-start-soon/>

23)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sh8bn-taveta-kajiado-ppp-road-cancelled-over-cost-concerns-4856844>

24) <https://x.com/KeNHAKenya/status/1885724205334868258>